

비주류 “분당은 막자”... 文대표 사퇴·비대위 구성 압박

안철수 탈당... 격랑에 빠진 새정치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다시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비주류 진영 의원들은 14일 문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선도 탈당'을 선언하며 지도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가 어떠한 수습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분당 국면의 흐름이 좌우될 전망이다.

일단, 문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며 “아무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총선 승리에 이르는 새정치연합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5일까지 이들 동안 부산에서 가족들과 머물며 정국 구상에 나선 문 대표는 오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총선체제로 전환, 선대위 구성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는 물론 최재성, 진성준 의원 등 강성 주류 인사들의 2선 후퇴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수습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비주류 진영에서는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체제’라며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직 광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 등 수도권 의원들의 탈당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표의 정면 돌파 카드는 호남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야권 신당의 원심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류와 비주류 진영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대규모 탈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당모임 “대표 물러나야 수습”

주류 “대규모 탈당 사태 없을 것”

내일 최고위원회의 해법 주목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구당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과 당심은 문재인 대표에게 구당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게 한 원인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표가 계속된 선거 패배, 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주류 진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분열을 택한 것이며 대규모 탈당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비주류 진영과의 상당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문 대표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규모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은 선부론 이야기”라면서 “실제 탈당은 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쉽게 결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주류의 설총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의 탈당은 야권 전체에 해가 되는 선택이라며 문 대표 체제 하에서 당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다시 공은 문 대표에게 넘겨진 상황”이라며 “문 대표가 어떠한 수습책을 내놓느냐가 분당 국면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역구 향하는 文·安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14일 정국 구상 차 부산을 방문해 차량에 오르고 있고(왼쪽)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 노원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다”

탈당후 첫 일정 노원구 경로당 찾아 지역구 출마 의지

17일 광주 방문 ‘시민 네트워크 무등’ 창립대회 참석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14일 패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홀로서기에 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이후 첫 일정으로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경로당을 찾았다. 그는 이날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병 출마 여부에 대해 “어제 (탈당) 발표하고 나서 처음 방문하는 곳이 저의 지역 어르신”이라며 “변경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주였는데 존 스컬리 대표에게 쫓겨났다. 그 다음은 스티브 잡스 뒀던 거죠. 그 다음 결과들은...”이라고 말했다.

잡스는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을 창업해 회사를 성공가도에 올렸으나 1985년 자신이 영입한 CEO 존 스컬리에 의해 축출됐고, 이후 경영난을 겪던 애플에 복귀해 아이팟·아이폰을 대성공시키며 애플을 세계 최대 IT업체로 성공시켰다.

안 의원은 정치 세력화 계획과 관련,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모든 일을 할 생각”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 말씀부터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여러분을 만나보고 말씀을 듣겠다”면서 “내일(15일)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부산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보고, 목요일(17일) 정도

에는 광주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이 오는 17일 ‘안풍(安風)’의 진원지인 광주를 찾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그는 광주 5·18 기록관에서 열리는 시민네트워크 ‘무등’ 창립대회에 참석한다. 강행욱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조정관 전남대 교수,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신성진 전 광주·전남 민연련 공동대표, 김남희 전 진보신당 광주시장 여성부위원장 등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 일각에서는 조 교수, 서 전 의원 등 안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들어 안 의원이 광주에서 세 규합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안 의원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1년 4개월 만에 1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의 성인유권자 25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결과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안 의원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1.8%포인트 오른 10.1%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호남(13.9%→21.0%)과 무당층(17.0%→21.8%)에서 지지율이 큰 폭 오르며 수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탈당...광주·전남 단체장 행보 주목

윤장현 “시정현안·민생에 전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야권 세력 재편이 예상되면서 뒷받침인 광주·전남 단체장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탈당 여부 못지않게 지역에서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는 단체장의 신당행도 관심을 끄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윤 시장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청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동구청장은 공석이다. 전남은 이낙연 지사를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목포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영광군수, 장성군수, 보성군수, 장흥군수는 무소속이다. 특히 광주·전남 단체장 중 정치적 상징성이 큰 새정치연합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거리다.

윤 시장은 지난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반대 여론에도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 뒀으로 전략공천을 받아 대표적인 ‘안철수 사람’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14일 “현재 당 상황은 안타깝다. 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시정현안을 중심으로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안 의원에게 정치적 채무는 없다. 다만, 순화규계로 분류되면서 순 전 대표와 보조를 맞추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상당수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도 안 의원 탈당에 따른 야권 정치지형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단체장 가운데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주철현 여수시장은 “안 전 대표의 혁신에 대한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단체장으로서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초단체장은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당 간류, 탈당, 신당행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 분석도 나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n@kwangju.co.kr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당신의 만원으로 영광이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신청 클릭

“엄마, 우리집에 언제 가요?”

유방암으로 몇번의 수술 끝에 요양중인 영광이의 할머니와 미혼모지만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영광이의 엄마.

부족하지만 화목했던 영광이네는 갑작스런 화마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이는 지금, 추운 겨울을 임시 거처인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 사용된 사진은 박지만 사진작가의 채능기부로 촬영하였습니다.

[영광이의 집이 지어진다면 사랑이 모여서 지어진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모아 영광이를 집으로!

1만원 기부천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문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061-921-4397/061-274-0041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 농협 301-0081-6148-11